

2022 임팩트그라운드

사업결과보고서

재단법인 브라이언임팩트는

기술이 사람을 도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기술로 세상을 바꾸는 혁신가들과
여러 분야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 6월 출범했습니다

임팩트그라운드는

사회혁신조직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사회문제를 풀어내고,
스케일업/스케일아웃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회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험과 아이디어를 시도해볼 수 있도록 돕습니다.

※ 본 자료는 2022 임팩트그라운드의 지원을 받는 사회혁신조직의 사업결과보고서입니다.
사회공익을 위해, 본 자료를 공유하며, 영리목적의 사용이나 자료의 편집은 불가합니다.

2022년

사업결과보고서

사업기간	2022.01.01. ~ 2022.12.31
지원사업명	Second Chance for All
제출단체명	(사)세상을품은아이들

2022년 사업보고

2022

‘Second Chance for All’
사업을 마무리하며

2022년은 세품아가 쉽게 꿈꾸지 못했던 조금은 먼 훗날에나 할 수 있을 것 같았던 일들이 시작된 놀라운 한해입니다. **아이들의 변화를 위한 '최적의 환경과 교육' 끊임없이 상상하고 그려왔지만 너무나도 멀게 느껴지는 일이었습니다.**

세품아 초기, 변했다고 생각했던 아이들이 너무도 쉽게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는 것을 보고 낙심하였습니다. 그러나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자극'들에 '반응'한 것이지, 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는 더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들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아이들의 변화를 보았습니다. 아이들은 범죄를 저지르던 자신의 모습이 진짜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된 행동을 하는, 괜찮아 보이는 나로 살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으로 살려고 애썼습니다. 결국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정체성의 변화가 삶의 변화'였습니다.**

'정체성의 변화를 통한 삶의 변화'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입니다. 아이들의 가치를 진정으로 인정하며 아이들과 변화의 여정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 진정성과 전문성이 조화를 이룬 사람이 꼭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반복된 '경험'입니다. 자신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다양한 경험, 무기력하고 패배의식에 잠긴 아이를 도전하는 아이로 일으키기 위한 작은 성공과 성취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은 성공과 성취의 연속에 초점을 맞추어 교육과정들을 만들어 냈습니다.

세 번째는 '공간'입니다. “출근 하는게 너무나 행복하고 뿌듯해요” 헤이그라운드에서 입주한 스타트업에서 일하게 된 세품아 출신 청년의 고백입니다. 공간의 환경과 정체성은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줍니다.

네 번째는 '시간'입니다. 변화는 한 순간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켜켜이 쌓여진 시간 속에서 일어납니다. 모든 것을 과정으로 보며 함께 해야 합니다. 이 네 가지가 최적화되어야 함을 많은 성공과 실패들을 통해 배웠습니다.

세품아 변화 모델이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최적의 상태를 만드는 일이 드디어 시작 되었습니다. 그동안 꿈도 꾸기 어려웠던 공간 최적화 사업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R&D TF를 통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검증 확산하고, 전문 인력을 양성 할수 있는 R&D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또 다른 기관들과 적극적으로 함께 해나가는 일도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2022년 이전에 할 수 없었던 도전들을 한꺼번에 시작하게 된 가장 흥미진진하고 감사한 한해였습니다.

2022년 사업보고

핵심사업
요약

■ 핵심 사업 내용 요약

사업명	계획
교육 대상자 증원 및 교육의 최적화를 위한 공간 조성사업	현재 인력과 공간부족으로 인해 최소한의 인원을 교육하고 있다. 교육 및 주거공간의 확충과 더불어 교사의 확충(자부담)을 통해 교육대상자를 증원(숙식인원 2022년 40명, 2023년 50명)코자 한다. 더 많은 대상자들의 교육을 통해 솔루션을 검증하고 일반화 1)교육공간 1-1)기존교육 공간 리뉴얼 -강당,식당,교육 공간 재배치 및 리모델링 1-2)신축공간 -자립교육 공간 신축(메이커스페이스 및 코워킹스페이스) 2)생활공간 2-1)교사 기숙사 -외부에 임대했던 2동의 건물 회수, 교사 기숙사로 리모델링 2-2)학생 기숙사 -기존의 교사 기숙사를 학생 기숙사로 리모델링
R&D센터 설립 준비를 위한 R&D TF 신설	솔루션의 검증과 일반화 및 확산을 준비하는 R&D센터 설립의 전단계로 솔루션 검증과 일반화 ,교육 컨텐츠 제작을 위한 R&D TF 신설 -교재 발간 및 교육프로그램의 모듈화 -제품아 그 후 리포트 제작 -변화 이야기 영상제작 -독서 아카이브 -SCT 저널 -인력(자부담 채용 및 용역)

2022년 사업보고

핵심사업
결과

■ 핵심사업 최종 결과

사업 1. 교육 대상자 증원 및 교육의 최적화를 위한 공간 조성사업

■ 진행 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립·교육 공간 매입												불발
자립·교육 공간 신축												불발
강당·식당·교육동 리모델링												2023 진행
교사·학생 기숙사 리모델링												2023 진행

■ 진행 결과

사업	결과 (달성도)	
교육 대상자 증원 및 교육의 최적화를 위한 공간 조성사업	자립·교육 공간 매입 (0%)	● 현 세품아 부지와 맞닿아 있는 곳[화대리 150-7/150-17]을 매입하여 자립·교육공간을 신축하려고 하였음. ● 장시간 부지 매입 건에 대해 협의 하였으나 매도자와의 의견조율이 잘 되지 않았음. 또한 매입 시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구매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계획된 원안대로 진행 되지 못함. ● 세품아의 부지 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모색 중.
	자립·교육 공간 신축 (0%)	
	강당·식당·교육동 리모델링 (0%)	● 공간 조성 사업의 우선순위 중 가장 마지막에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부지 매입에 많은 시간을 투입함(최종적으로 12월 말에 매입 불발 확정)에 따라 후속 진행이 되지 못함. 공간은 이미 50% 이상 리모델링 설계 구상이 되어 있는 상태이나 수정·보완 될 예정.
	교사·학생 기숙사 리모델링 (0%)	● 임대 공간 2동 계약 조기 종료 후 리모델링을 진행하여 교사 및 학생(자립홈)의 기숙사로 사용하려고 진행하였으나, 설계 및 인테리어 계획이 90% 진행된 상황에서 부지 매입 불발로 인해 조기 계약 종료가 불가해졌음에 따라 계획된 원안대로 진행 되지 못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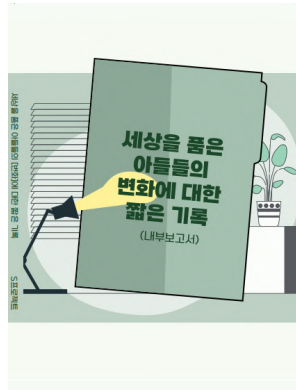
사업 2. R&D센터 설립 준비를 위한 R&D TF 신설

■ 진행 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구프로젝트												
팔로업 리포트												소책자 발간
SCT 저널						ebook 발간	세특 시작					
독서 아카이브					영상 제작							
제품아수업다큐								몽골 여행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업그레이드												
똑똑						교재 발간						
아이브러리												소책자 발간
유니버시티												
교육과정의 모듈화 [Challenge - Change - Chance maker]												
제품아 모델 확립									단계 분리			
솔루션 검증과 일반화 및 확산을 준비하는 R&D 센터 설립 준비												
R&D 센터 설립												

■ 진행 결과

사업	결과 (달성도)
	연구프로젝트_팔로업 리포트 (50%)
R&D센터 설립 준비를 위한 R&D TF 신설	● S프로젝트 소책자 발간 - S프로젝트 내부용 소책자 발간 (2022.12.23.) - S프로젝트 결과 내부 최종 발표 (2022.12.29.)



▶ 결과

- 아들 12명의 '세품아 이전', '세품아 기간', '세품아 이후' 과정속에서 일어나는 변화 및 고충을 기록함.
- 부모님을 비롯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주변 사람들을 포함한 심층 인터뷰
- 인터뷰 대상자 12명의 아이들 중 현재 가정으로 돌아가 부모님의 안정된 돌봄으로 생활하는 아이 5명, 재범 4명, 세품아 위탁 3명 파악.
- 집중 인터뷰 결과 기존의 아이들에 대한 분석이 올바른 것이었음을 재 확인.
- 연속+통합적인 생활-그룹-자립에서 이삭줍기까지 장기적으로 연결된 돌봄과 교육의 필요성 확인 (*6개월이라는 기간의 무의미함 발견)

▶ 활용

- 인터뷰 분석 결과 다음의 방향으로 돌봄과 교육의 방향 설정
 1. 자진 연장률을 높여 연속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것
 2. 일시적인 행동교정이 아닌 마음의 변화가 행동의 변화로 이어지도록 교육 과정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 내는 것
 3. 아이들의 자발성에 기반한 교육들을 강화하는 것
 4. 작은 성취와 성공의 경험들 가지게 하는것을 통해 자존감을 높여 가는 것
 5. 이 모든 과정들을 통합적으로 운영하고 최적화
- 새롭게 집중하는 교육과정들의 효과성에 대한 후속연구 필요
- 이후 세품아의 사업에 대한 연구의 기본 자료로 활용예정
- S프로젝트 인터뷰 내용을 기반으로 사례관리시스템 제작 예정.

첨부1. S프로젝트 소책자

연구프로젝트_SCT채널 (50%)

● SCT 저널 ebook 발간 (2022.06.28.)

- Second Chance Table 1_저널 (2020.12.12. ~2021.12.30.)
- : 세품아와 함께 하는 내·외부의 이야기들을 통한 이해관계자(법원, 부모님, 후

원자 등)와의 소통

- Second Chance Table 2_세품아 Talk (2022.07.07. ~현재 진행 중)
- : 다양한 채널(저널, 라디오등)로 아이들의 고민과 이야기 공유로 범죄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SECOND CHANCE TABLE

2022.11.12(월) 2022.11.12(월)

"넘어질 순 있다 포기할 순 없다"



이동주교사(가운데)와 학생들



▶ 결과

1. Second Chance Table 1_저널

총 75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112.5시간의 인터뷰를 거쳐 총 59회 저널을 제작하고 ebook로 발간하였음.

2. Second Chance Table 2 세품아 Talk

총 16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총 24시간의 인터뷰에 걸쳐 11회 세톡을 완료하였고, 현재 진행 중.

- SCT 저널은 외부와의 소통창구로서 시작하였으나, 실제적으로는 인터뷰를 통해 아이들이 스스로의 인생을 회고하고 정리하는 기회를 가지게 됨.
- 외부와의 소통 창구에서 한 아이를 바라보게 되는 교육적인 관점으로 변화 됨.
- 이후 후속으로 "세톡"이라는 말하는 라디오 채널을 22년 7월부터 진행 중. 글을 통해 나의 이야기를 전달했다면, 이제는 육성으로 진술하고 생생한 살아 움직이는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는 중.

첨부2. SCT 저널 ebook

연구프로젝트_독서아카이브 (100%)

● 독서 수업 진행 완료 및 독서 스케치 영상 제작

- 3개의 분반으로 각기 다른 주제로 1년간 진행.
- 독서 수업을 하는 과정과 전과 후를 담은 아이들과 교사의 이야기가 담긴 스케치 영상 제작.

▶ **결과**

- 책에 대한 진입장벽이 낮아짐. 책을 어렵고 힘들어서 다가갈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던 것에서 해볼 만한 것, 나름 재미가 있는 것이라 인식하게 됨.
- ‘일정 시간 이상 독서를 한다.’는 것에만 목표를 두고 수업을 지속하였으나, 책의 재미를 알게 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단편중편소설에서 비문학서적까지 범위 확대.
- 윤독 위주의 수업에서 독후 활동까지 가능해짐.
- 1) 소설책을 읽고 인물이나 책의 메시지에 대한 대화 나누기
- 2) 연극대본이나 동화책을 읽으며 연기 활동하기
- 읽기 능력도 향상되어 글을 더듬거리며 읽던 아이가 글을 수월하게 읽어내고, 책의 줄거리나 내용 파악도 잘 파악해내게 됨.

▶ **활용**

- 영상 자체는 내부 기록물로 보관 예정.
- 독서 수업과 아이들의 인터뷰에 기반한 독서수업의 다양성 및 책에 대한 경험의 폭 넓히기
- 독서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독서 수업 전담 교사 채용 및 SCL(second chance library) 내년 6월 완공 예정)

첨부3. 독서수업 스케치 영상

연구프로젝트_세품아 수업다큐 (40%)

● **워크북 및 몽골 다큐멘터리 1·2편 제작**

- 사전 준비 결과물에 기반한 워크북 제작 및 활용.
- 다큐멘터리 영상물 4편(80분 가량)까지 제작될 예정.
- 현재 책은 제작 중. 영상물은 2편까지 완성, 3~4편 제작 중.



2022.08.17 수
나에게 묻다

"좀 해"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주 피눈물이 난다.
나를 속으로 부딪혔을 상처면서 되고 있다.
해도 안되는데 어떡하란 말인가.
가끔 사람들은 내가 된다는 이유로
상대방도 함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런 잔인한 놈들아,
내게도 달심이 해라.
아주 세상을 열심히 살아서
만사가 대흥하고 성공하세요.
- 김형준 작가

2022.08.22 수
나에게 묻다

아무하루를 살아가며
수많은 사랑을 만나면서
웃고 우는 순간에
세상에 단단히 서 있을 수 있도록
두 다리를 기댈 수 있는 것은
다른 아님!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었다.
- 최수민 작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의욕이 솟아오?

▶ 결과

- 몽골 여행 이후 아이들의 변화에 따른 단계가 나뉘어짐.
[생활-그룹 → 생활-그룹-자립]
- 몽골 여행에 참여한 아이들 10명 중 퇴소자 5명, 퇴소 후 다시 기관으로 돌아온 아이 1명, 다음 단계를 선택한 아이들 4명으로 50:50의 비율을 가지게 됨.
* 결정의 요소는 최고의 수준을 경험한 아이들의 삶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
- 읽고, 듣고, 쓰고, 말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과 필요성을 확인하게 되는 계기.
* 실제로 몽골을 경험한 아이와 경험하지 않은 아이의 태도나 글쓰는 능력 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서 이후 교육을 진행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 여행 속의 프로그램을 일과시간 외에 요청하여 [마가의 다락방] 모임이 생김.
일상의 나눔, 서로에 대한 격려와 칭찬, 문제해결 등이 진행.
- 사전 준비 과정 중 작성한 출판계약서에 의해 공동 집필이 된 몽골 책이 나올 예정(내부용)

▶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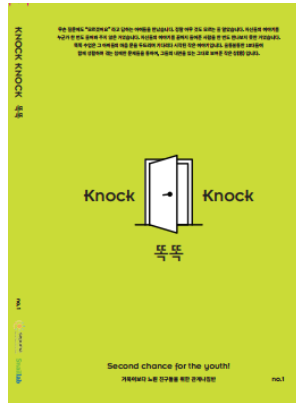
- 영상물과 책은 이후에 몽골 여행에 대한 OT자료로 활용
- 정규 교육과정으로서의 여행 커리큘럼 교재로 제작
- 여행담당 교사들을 위한 교육 운영 매뉴얼 제작

첨부4. 몽골 다큐멘터리 1편·2편+워크북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업그레이드_교재제작 (70%)

● Knock Knock 똑똑 수업 교재 발간

- 똑똑 교재 1 (1쇄 2021.12.24./2쇄 2022.06.22.)발간
- 똑똑 교재 2 (1쇄 2022.06.20.) 발간



▶ 결과

- 일대일 대화 및 상담 기록 등을 기반으로 아이들이 공감할 수 있는 소재와 주제로 에피소드 형식의 텍스트를 작성.
- 에피소드의 주요 주제는 가족, 친구, 자존감, 세피아 내 갈등, 진로 갈등, 입소 전 생활, 퇴소 후 생활, 폭력, 불안함, 두려움, 실패, 신뢰, 존중, 배려 등
- 생각이 아닌 감각에 의존해 살아가던 아이들의 생각을 깨우는 똑똑 수업교재로 활용 중.

▶ 활용

- 똑똑 수업의 내용을 기반으로 아이들과 1:1 미팅 시 더 깊은 대화의 주제로 활용
- 돌봄의 시간 중 QT시간에 똑똑 수업의 주제와 연계하여 활용.

● 아이브러리 수업 결과물 소책자 발간

- 주제선정 → 다양한 경험 (전시/영화/여행/책 등) → 나의 경험과 생각에 기반으로 재해석 → 어떤 형식으로든 결과물 내기 → 전시 및 발표



project 1 [헤이트]



project 2 [약함이 힘이 될 때]

첨부5. 똑똑 교재 1:2 + 아이브러리 소책자

2022년 사업보고

진행과정,
주요성과 및 과제

■ 사업 과제별 주요 성과

I. 계획

사업 1	교육대상자 증원 및 교육의 최적화를 위한 공간 조성사업												
구 분	내 용												
필요성	1.법원의 요청 : 포천이전 이후 세품아의 안정을 위해 교육 대상자의 위탁을 제한해왔으나 더 이상 제한 할 수 없는 상황 2.대상자 확대에 따른 공간부족 : 세품아 모델의 효과성 검증을 위해서 최소 50명 이상의 교육대상자 필요함. 교육 대상자 인원 증원시 교사인원도 증원 필요. 이에 따른 기숙사 및 교육공간의 확장 3.새로운 정체성이 부여되어지는 공간 최적화의 필요 : 낙인감을 주는 소년보호시설 특유의 공간이 아닌,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주는 공간의 필요												
방향	1.삶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안전함과 따뜻함을 주는 공간 2.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로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줄수 있는 배려 가득한 공간 3.아이들에게 상처와 두려움의 장소인 기존의 학교와 소년보호시설과 전혀 다른 창의적이고 개방적인 공간												
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자립·교육 공간 부지 매입												
	마스터 플랜												
	자립교육공간 신축												
	교사·학생 기숙사 리모델링												
	강당·식당·교육동 리모델링												
사업 2	R&D센터 설립 준비를 위한 R&D TF 신설												
구 분	내 용												
필요성	1. '정체성의 변화를 통한 삶의 변화'를 기반으로 한 세품아 모델의 확립을 연구개발 2. 세품아 모델의 임상 검증과 최적화를 통해 복제 확산 가능한 구조로 만듦 3. 세품아 모델을 실행할수 있는 전문인력 양성 4. 장기적으로 협력 기관 리뉴얼 프로젝트 및 확산을 담당 R&D TF는 위의 역할을 수행할 R&D센터를 설립을 준비하고 센터 설립 이전에 R&D센터의 기능을 담당												

방향	1. 모든 수업의 교재화 및 기록 (영상 및 문서) 2. 교육과정의 지속적인 개발과 효과성에 대한 검증 및 이를 바탕으로 한 재구성 3. 세피아의 변화이론과 아이들에 대한 연구프로젝트 4. 변화 과정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기록(영상 및 각종기록매체)												
기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교재 제작												
	팔로업 리포터												
	세피아 수업다큐												
	독서 아카이브												
	SCT저널												

II. 주요 성과 및 과제

사업 1	교육대상자 증원 및 교육의 최적화를 위한 공간 조성사업
사업 1-1-2	자립·교육 공간 매입 / 자립·교육 공간 신축

1. 땅 매입 과정 중 판매자의 매입 가격 변동의 제시가 몇 차례 발생. [3억→4억5천→3억5천]
2. 매입할 땅의 조건이 법인에서 매입해서 보유하기에는 리스크가 크다고 판단. [매입하려고 하는 땅의 종류는 “전”으로, “전”은 농업법인이나 개인만 소유 가능/구매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반드시 필요. 땅 매입 시 반드시 형질변경 필요.]
3. 리스크를 지고 매입할 경우 부가적으로 지출하게 될 세금[취득세, 경계측량비, 농지전용 부담금 등]과 수수료의 금액이 법인이 부담하기엔 어려움이 있음.

부동산 매입비	350,000,000원
형질 변경비	57,000,000원
전세금 반환금	50,000,000원
세금 및 수수료	50,000,000원

4. 오랜 기간의 조율 끝에 부지 매입 계약서 작성 단계 까지 갔으나, 계약서 내용 및 특약사항 부분에 있어 판매자와의 의견조율이 되지 않아 12월 말 최종적으로 부지 매입 의사가 없음을 밝힘.

사업 1-3	강당·식당·교육동 리모델링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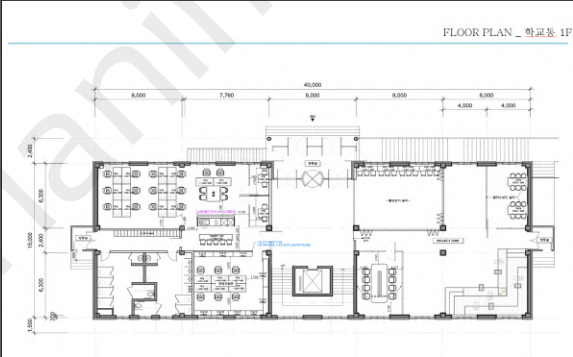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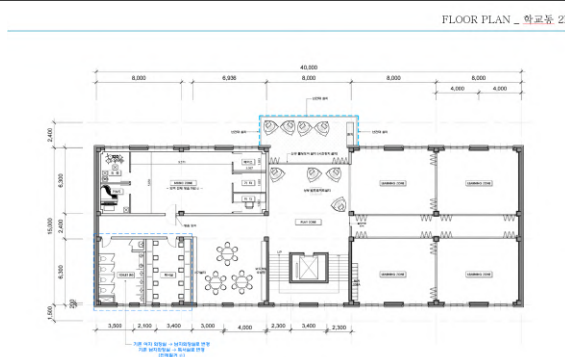
1. 2023년 진행 예정인 세품아의 '같은말,같은마음,같은뜻' 캠페인을 통해 하나된 교육의 가치와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교육활동에 최적화된 공간으로 구성
2. 공간 구성은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로 다시 변경하는 것은 힘듦으로 신중을 기해 기관과 대상자(교사+학생)에 맞는 공간으로 만들기 위함.
3. 임대 공간 리모델링 불가로 인해 필요한 교사 기숙공간을 학교 3층에 증축하는 방향으로 가
능 여부 및 구조 확인 등 검토 중에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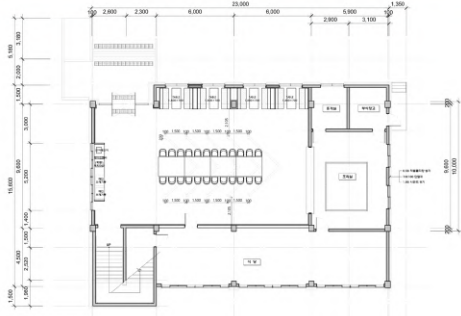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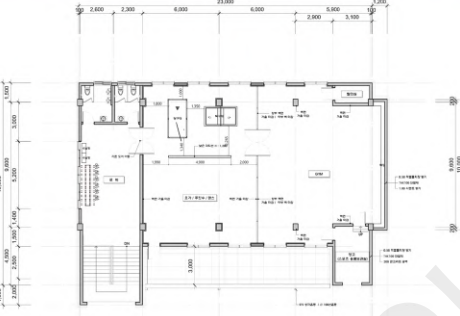
첨부1~4. 교육동 및 식당 도면

사업 1-4	교사·학생 기숙사 리모델링
--------	----------------

1. 증여 받을 당시 전세계약[2014.09~2024.09]되어 있었 공간[화대리 150-16 가동/나동]의 계약을 조기 종료하기 위해 진행 하였으나, 부지 매입이 불발되면서 기존 전세계약 기간까지 임차인이 사용하기로 함.
2. 임대 공간에 대한 설계 및 리모델링안은 90% 확정된 사항이었으나 장기적으로 기간이 미뤄짐에 따라 이후 공간 마스터 플랜 속에서 임대 종료 시점의 기관 필요성에 따라 공간을 재구성할 예정.
3. 기존 원안대로 교사 및 학생 기숙사 공간 구성이 불가피 해지면서, 학교 3층에 기숙사 증축 여부를 확인 하고 설계하는 동안 여교사 기숙공간을 법인이 위치한 일동면 읍내로 옮기기로 함. 여교사 기숙공간에 자립홈 학생들이 이동, 당분간(23년 9월 정도 예상) 남교사와 함께 기숙공간을 사용하게 될 예정.

첨부5~6. 교사 및 학생 기숙사 도면

	
첨부1. 교육동_1층	첨부2. 교육동_2층

	
첨부3. 식당_1층	첨부4. 식당_2층
	
첨부5. 교사 기숙사	첨부6. 학생 기숙사

추후 계획

부지 매입을 하지 않고, 현 기존의 세품아 내 부지 안에서 새롭게 공간 재구성.

1. 신축) Maker Space [자립 교육 공간]

- 현 텃밭[화대리 152-3번지 3종]으로 사용되고 있는 공간에 신축 예정.

2. 리모델링) 기존 교육 공간

- 현재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아이들의 단계별 및 교육에 따라 공간 재구성 예정.

3. 신축) 교사 기숙사 및 게스트 하우스

- 기존 교육 공간인 학교 4층까지 증축이 가능함. 현재 2층까지는 학교 공간으로 사용 중. 3층에 교사 기숙사(남/여) 및 게스트 하우스 신축 예정.

4. 리모델링 및 보수) 기존 기숙 공간

- 현재 아이들이 기숙하고 있는 생활관, 그룹&자립홈 모두 보수가 필요한 상태. 내·외부 보수와 생활관 옥상에 아이들이 아지트로 사용할 수 있는 옥상정원 구성 예정.

사업 2	R&D센터 설립 준비를 위한 R&D TF 신설
사업 2-1-1	연구프로젝트_팔로업 리포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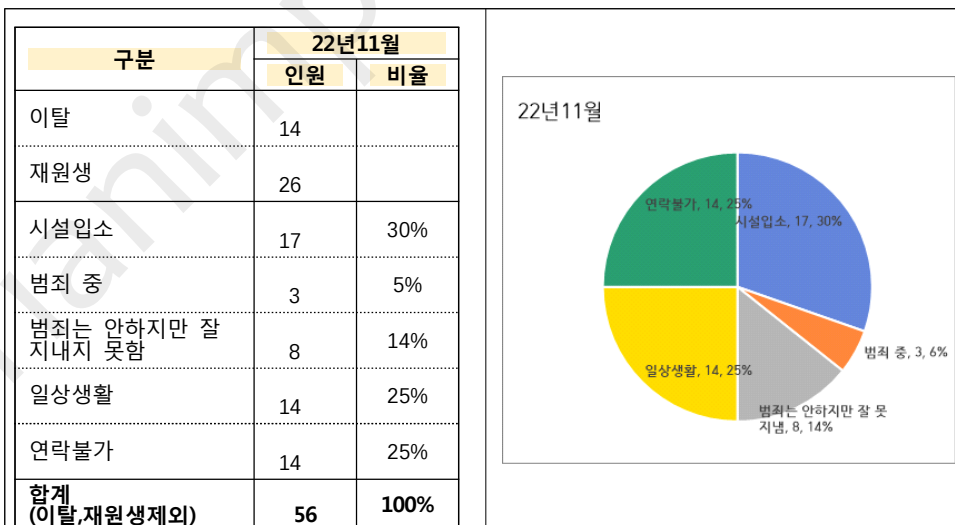
■ 진행과정

1. 기획의도

- 아이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이곳까지 오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요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곳 세품아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 회복되어 가는지, 그 과정에서 핵심적인 도움(성공) 요인은 무엇이고 그것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한 프로젝트.
- 아이들의 상태와 세품아의 상태를 '진단'하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

2. 사전 준비

- 1) 세품아의 주 소재지 이전 이후(부천→포천) 3년간 함께한 아이들의 생활 및 회복도 파악
- 2) 세품아 생활 기간별 성장도 및 회복솔루션 파악
 - 파악인원: 총 96명
 - 파악시기: 2019년01월 - 2022년11월 세품아에서 생활한 아이들
 - 파악방법: 총 96명 중 이탈 14명 재원 26명의 40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56명의 아이들이 사회로 돌아가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현황 파악
- 3) 파악 결과
 - 총 56명 중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14명을 제외한 나머지 42명은 건강한 생활을 하고 있지 못함. 이후 지원과 돌봄이 필요함.
 - 퇴소한 12명의 아이들의 성장도 및 고민지점 파악. 사전 자료에 기반하여 대상자 선정 후 사회 생활과 대인관계 파악.



3. 과정

- 첫 모임 22.03.03 총 5인의 교사로 시작
- 프로젝트 미팅 월 2회*10개월 진행

1. 기준에 따른 대상자(12명의 아이들) 선정
 - 대상자 선정을 위해 개별적으로 입소상담, 심사원 보고서, 아이의 성향 및 특성 등을 고려함.
2. 대상자 정보 확보를 위한 계획 수립
 - 130여개의 인터뷰 문항에 기반한 인터뷰 진행
 - 내부의 아이들은 주 1회*평균 1.5시간*9개월
 - 외부의 아이들은 월 2회*평균 2시간*9개월
3. 대상자 및 대상자 관련 인물들과의 만남
 - 관련 인물 한 아이당 1번 이상의 만남
 - * 추가적인 이해가 필요한 3명 정도의 아이들은 가정방문, 외부&전화 미팅 등 3번 이상의 만남을 가짐.
4. 대상자 별 이야기 형식의 글 작성
 - 교사들이 각자 담당을 정하여 개별적으로 글을 작성하고 회의에서 피드백을 거쳐 최종원고를 완성함.

- 업무 시간 이외의 시간을 활용하여 이미 퇴소한 아이들을 만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세품아 내부에서는 잘 지내고, 나름 관계가 좋았던 아이들도 세품아의 품을 떠난 뒤의 관계는 이전만큼의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함.
- 한번은 만남이 가능하지만, 그 이상의 많은 시간을 확보하여 아이들의 상태나 이야기를 확인하고 듣는 것을 시작조차 못한 경우도 있었음.
- 아이들의 부모님과도 이야기를 통해 아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지만 협조가 잘 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음. 그런 경우 아이들의 이야기에 의존해서 텍스트 작성.

■ 성과 및 과제

“무엇보다도 아이들의 세품아 밖의 모습까지 10개월 가까이 쫓 따라가 보았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세품아가 얼마나 온실에 가까운 환경인지 새삼 확인 할수 있었고 그에 비해 세품아 밖은 엄청난 유혹과 자극이 하루 24시간 쉬지 않고 몰아치는 태풍의 현장임을 리얼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세품아 안에서 열과 성을 다해 진행하는 프로그램들 중 조금 더 효과적인 것들과 그 이유들도 나름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었습니다”

- S프로젝트 참여 선생님

- 세품아 속에서 열심히 생활한 아이들도 사회로 나갔을 때 가정과 학교의 주변의 지지와 도움이 없으면 대부분이 재범이나 이와 유사한 환경에 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음. 12명중 3/1이 재범과 불안정한 생활을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볼 때 퇴소 후에도 지속적인 돌봄과 교육이 필요함.

- 퇴소후의 아이들도 보살피며 도와줄 수 있는 통합지원 시스템과 지원자원마련이 필요함.
- 변화와 성장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양적·질적 연구 필요. (영상 및 관련 자료 아카이빙)

■ 추후 계획

1. 사례관리 시스템 구축 및 정리

- 대상자 : 2019년 이후 세품아에 입소한 아이들
- 'Snail Lab 연구소' + 'Youth mate 아동청소년문제 연구소' 가 협업하여 시스템을 구축 예정.
- * 2023년부터는 세품아 설립자와 내·외부 연구원들로 구성된 세상을품은아이들 R&D센터 'Snail Lab' 공식 설립 예정.
- 일정

1월 ~ 3월	· 기존 프로그램 및 사례 취합 및 분석 · 개별인터뷰
4월 ~ 6월	· 프로그램재구조화 · DB시스템 구축
7월 ~ 9월	· 프로그램MAP 제작 · DB시스템 및 매뉴얼 제작·수정·보완
10월 ~ 12월	· 시스템 구축 · 콘텐츠 완료 및 검증
2024년 ~	· 사례관리시스템을 기반으로 세품아 척도 개발

2. 지속가능한 통합지원 생태계 구축

: 사례관리 및 History Book 제작으로 지원체계구축 및 생태계 기반 마련

3. 단계별 교육 커리큘럼 정리 및 체계화

: 올해 교육의 기반을 바탕으로 보편적 교육이 가능한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최적화함.
: 교사의 분야별 역량 강화를 통해 전문성을 내재화하여, 외부 교육 의존도를 줄이고, 내부 교육 연구 개발과 전문성 확보.

4. 자립 단계의 학교 출범

: 자립 교육의 새로운 접근으로 건강한 자립을 위한 통합교육과 공동체를 형성.
: 직업적 교육보다 실질적 자립을 위한 기초훈련과 정서적 돌봄을 함께 지향.
: 실제 현업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밀착 교육중심의 자립교육
: 한 아이 한 아이의 자립을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갈 '사회적 입양' 수준의 밀도 높은 관계망의 구축, 한 아이를 둘러싼 온 마을
: 세품아 내에 있는 아이들 외 퇴소 이후의 아이들도 함께 할 수 있는 통합적인 과정 마련.

사업 2-1-2	연구프로젝트_SCT채널
----------	--------------

■ 진행과정

1. Second Chance Table 1_저널 (2020.12.12. ~2021.12.30.)

- 대상 : 세품아 아이들과 교사 및 주변 지지자
- 내용 : 자신만의 이야기를 세품아와 연결하여 이야기

- 방법 : 매주 1명씩 선정하여 인터뷰 후 저널형식으로 제작
- 목적 : 아이들의 변화의 과정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이해관계자(법원, 부모님, 후원자 등)와 소통 채널인 동시에 변화과정에 대한 중요한 연구자료

2. Second Chance Table 2_세품아 Talk (2022.07.07. ~현재 진행 중)

- 대상 : 세품아 아이들 및 교사
- 내용 : 개개인의 고민과 세품아 적응기를 담은 진솔한 이야기
- 방법 : 월 2회 라디오의 형식으로 제작
- 목적 : 다양한 채널(저널, 라디오등)로 아이들의 고민과 이야기 공유로 범죄 청소년에 대한 인식 개선

■ 성과 및 과제

▼ 37회 저널 유*열 편(21.07.29)

SECOND CHANCE TABLE 2021. 7. 29 (목) 세품아 일곱번째 이야기 “제가 엄마랑 통화 하면서 ‘공부해서 대학갈까?’라고 물어보니까 엄마가 ‘피땀 흘릴 자식 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보여줘야겠다 생각했어요.” (목연수형 하다 평면 제초기가 되어버린 완월이 이야기) “알 모르겠어요.” 세품아에 새로 온 친구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 중 하나입니다. 저는 아이들이 대답하기 귀찮아서 이렇게 대답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간과 경향이 쌓이며 아이들은 정말로 모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나름대로 솔직한 대답이었던 것입니다. 모른다고 말하는 이유는 ‘생각’을 해 본 적 없기 때문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처음 온 아이들에게 “모르겠어요.”라는 대답은 못 하게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서 대답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동공은 흔들리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꽤 귀엽습니다. 이런 귀여운 모습도 대략 한 달이 지나면 다 사라지고 모든 질문에 능글능글하게 대답하는 수준이 됩니다.  ‘기타 잘치고 잘 좋은 커리어’가 꿈인 완월이, 세품아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기타라는 것이다.	“세상 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주변 사람들이에요. 그 누구도 혼자서는 살 수 없어요. 여기 와서 좋은 형들도 만나서 좋아요. 잘 챙겨주고 같이 이야기하면서 고민을 나누는 상대가 있어서 정말 좋아요.” “제가 저널 주인공을 하면 엄마한테 제 마음을 전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제가 삼 남매 중 막내라서 엄마랑 제일 친한데도 사실 대화를 많이 못 했어요.”
---	---

▼ 23회 저널 김*욱 편_ 퇴소 90일 전(21.04.22)

SECOND CHANCE TABLE	
2021. 4. 22 (목) 스물 세번째 이야기 나는 변했는데, 환경은 그대로입니다. 겁나요... 예전의 나로 돌아가게 만드는 유혹이 끊이지 않아요. 매일 그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버틸지 모르겠지만... (동욱이가 전해 준 세품아 밖 90일 이야기)  종수PMA과의 즐거운 데이트** 멤버기도 먹고 차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동욱이 (가짜배우사)	세품아를 떠나기 직전 동욱이는 불안해 했습니다. 그동안 세품아에서 노력해 만들어낸 자신의 긍정적 모습들이 눈 녹듯 사라질 것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습니다. 1. 나는 변했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집, 학교 그리고 친구들. 2. 다시 찾아온 유혹의 순간들, 그러나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은 동욱이 3. 하지만 그 전쟁은 매일 밤마다, 지나가는 거리마다 계속 진행 중.

▼ 51회 저널 부모교육 편 (21.11.04)

SECOND CHANCE TABLE	
2021. 11. 04 (목) 쉰한 번째 이야기 “아들을 세품아에 보낸 6개월은 그동안 너무 수고하고 힘드셨던 부모님들이 잠시 숨 쉴 수 있는 시간”이라는 대표님의 한 마디에 부모님들은 그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2021년 포천에서 진행된 ‘세품아 부모교육’ 이야기)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그 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느라 30분이 모자랐습니다. (왼쪽 위쪽 왼쪽부터) 성원, 태호, 준영, 재욱, (왼쪽에서 두번째 줄) 최진, 민준, 도영, 승호, (왼쪽에서 두번째 줄) 다은, 한별, 준혁, 영근, (오른쪽 위쪽) 영호, 준서, 광복, 광영이네 가족**	“아들을 세품아에 보낸 6개월은 그동안 너무 수고하고 힘드셨던 부모님들이 잠시 숨 쉴 수 있는 시간” 이렇게 4시간의 교육은 빠르게 끝이 났습니다. 마음이 아프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를 위로하는 따뜻한 시간이기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말이 ‘부모교육’이지 사실 부모님과 세품아가 함께 손잡고 우리 아이들 잘 키워보자고 약속하는 시간이었습니다.

▼ SCT 1_저널

“OO이가 요리수업에도 관심을 보이고 아버지 생각도 많이 한다고 하니 너무 대견합니다.”
- 인천가정법원 판사

“ OO이를 보니 다신 한번 아이들에겐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니 끝까지 믿고 지지해줘야 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 인천가정법원 000 판사

“ 넘어질 순 있지만 포기할 수 없는 OO이를 격렬히 응원합니다!!!!!!”
- 세품아 후원자

“ OO이처럼 착하고 마음이 예쁜 아이들이 평범한 아이들이 아니라 찾기 힘든 귀한 아이들이 되어가는 현실이 참 슬퍼요. 모두 어른들의 책임이죠. 그래도 세품아 어른들이 있어 희망적입니다!!이번 주 저널 감사히 잘 보았습니다.”
- 세품아 후원자

▼ SCT 2_세톡

“세톡을 들으며 시간가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OO이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줄 몰랐어요. 역시 사람은 말을 해야되나보네”
- 세톡 시청자

“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셨는지를 몰랐어요. 항상 웃는 얼굴로 이야기하시는 데 잘 이해는 못하겠지만 엄청 고생하셨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선생님!! 힘내시고요. 사랑합니다.”
- 세톡 시청자

- 저널을 통해 범죄청소년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갖는 후원자와 어른들의 모임 증가 필요.
- 후원자 및 지지자들에게 아이들의 일상과 고민을 공유하고 세품아에 대한 이해도 증감.
- 향후 범죄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및 후원체계 완성.
- 저널이 외부와의 소프트한 관계점이 되기 위한 장치 필요.
- 세톡은 저널보다 많은 이야기가 가능함. 이야기 외의 다양한 매체의 시도도 고민 중.
- 범죄청소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에서 긍정적인 인식으로 바뀔 수 있도록 내용을 세팅.
- 다양한 어른들의 지지와 응원 커뮤니티 형성을 하도록 시도.

■ 추후 계획

1. 인식개선을 위한 세품아 2편의 영상 제작 예정
 - 세품아 소개 및 소년범 이야기 : 범죄 청소년에 대한 인식개선 및 대중관심도 유도
 - 세품아 교사의 하루 브이로그 : 교사의 시선에서 본 아이들의 이야기
2. 다양한 방법으로 사람들과의 만남
 - 찾아가는 라디오 : 세품아와 관계된 외부 인사와 함께.
 - 건축 중인 도서관 내 녹음 부스 사용 - 아이들에게 말 할 수 있는 무대를 더 많이 줄 예정.

사업 2-1-3	독서아카이브
----------	--------

■ 진행과정

1. 필요성

- 세품아에 들어오는 아이들 중 50%이상은 태어나서 책을 읽어보지 않았거나, 도서관에 한 번도 가본 경험이 없음.

- 똑똑 수업 및 기초학습 등 수업들을 진행함에 있어 기초적인 학습의 4가지 요소[읽기, 쓰기, 말하기, 듣기]가 밀반침이 되어 있지 않아 애로사항이 있었음.
- 어떤 책을 읽어야 할지, 독서가 왜 필요한지에 대한 의식이 없었기에 도서를 고르고, 읽고, 나누는 등 독서가 일반적인 삶에 내려앉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동아리로 시작하였으나, 이후 필수 수업으로 진행되었음.

2. 진행 방법

- 3개의 분반 [A반 소설, B반 수필, C반 만화 및 대본 리딩]으로 3명의 교사가 진행.
- 12개월간 총 연인원 64명과 함께 16개의 책, 3개의 영상으로 주 1회* 1.5시간 진행
- 진행 방식은 함께 윤독을 하거나, 사전에 책을 읽고 온 뒤 모여서 독후활동을 진행.

■ 성과 및 과제

- 아이들에게 최적화 된 다양한 콘텐츠를 통해 책을 접할 수 있는 도서 공간의 필요에 따라 외부 기관 지원을 통해 도서관 SCL(second chance library) 설립 진행 중.

대지 위치	화대리 150-9번지
건축 면적	330m ² (약 100평 가량)
설계 및 공사 기간	설계 : 22년1월~9월 공사 : 22년9월~23년 6월

◎ SCL(second chance library)

1. 설립배경

세품아에 위탁된 아이들은 법원의 명령에 의해 일정수준의 격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격리의 상황은 아이들 교육에 최적의 상황인 단절을 가져다줍니다. 그러나 단절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만남입니다. 스네일 랩 캠퍼스의 기존의 공간들은 단절을 기반으로 한 내부의 교육들이 이루어지는 공간이고, 새롭게 만들어지는 공간은 세상과 연결된 공간으로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이었으면 합니다.

“ Second Chance Library는 새로운 만남의 공간”

1. 새로운 자신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 자신이 알지 못했던 자신을 새롭게 만나는 자리
- 자신이 꿈꾸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이야기들이 세워지고 나누어지는 자리
- 처음 경험하는 몰입의 결과물들이 나누어지는 자리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공연, 강연)
- 아이들의 변화 여정들이 콘텐츠로 만들어지고 나누어지는 자리

2. 새로운 사람(사람 책과 책)들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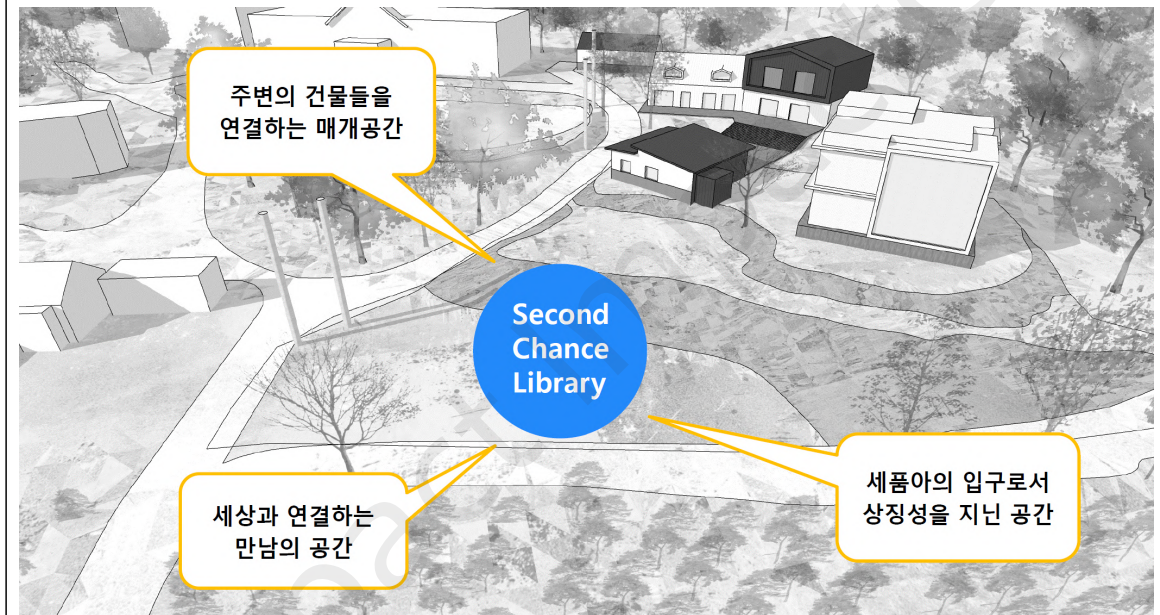
- 책을 통해서 아이들이 또 다른 삶을 만나는 자리
- 사람 책들을 통해서 자신의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자라고, 새로운 관계가 형성되는 자리
- 세상의 다양한 삶의 이야기들이 다양한 콘텐츠들로 만나는 자리

3. 새로운 일들을 만나고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일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 (MTA, 로컬)
- 도전해보지 않았던 일들을 도전하고 실험하는 자리
- 아이들의 도전의 결과물들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자리

4. 선생님들만을 위한 쉼과 충전의 자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아이들과 단절되어 편안한 휴식이 가능한 자리
- 자신을 다듬어 갈수 있는 연구의 자리



2. 프로그램

SCT(Second Chance Table) - 기간 연장을 결정하고 자신의 삶의 계획을 발표하는 자리

프로젝트 수업 쇼케이스 - 프로젝트 수업의 결과물을 공유, 내·외빈 초청

홀리 카니발 - 3개월마다 진행되는 정기음악공연

사람 책 - 외부초청 강연과 대화의 자리

부모교육 - 의무적인 부모교육 및 필요에 따른 부모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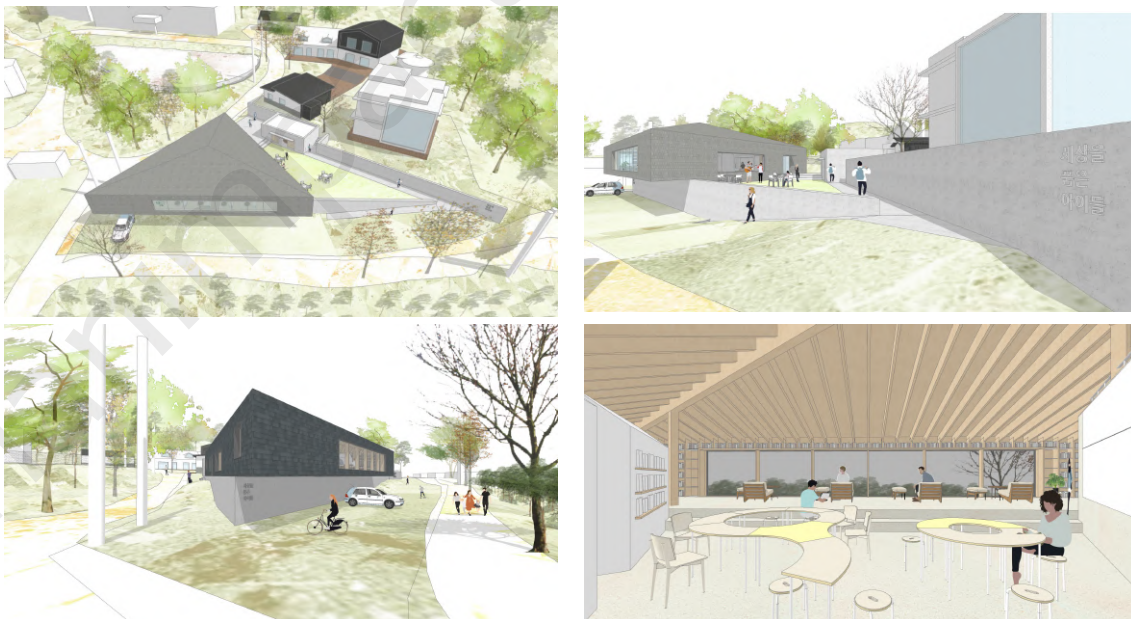
뮤지컬 - 뮤지컬 수업의 결과 발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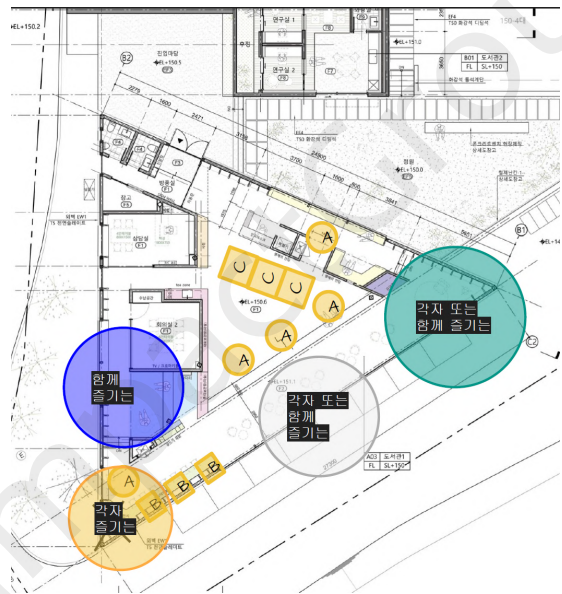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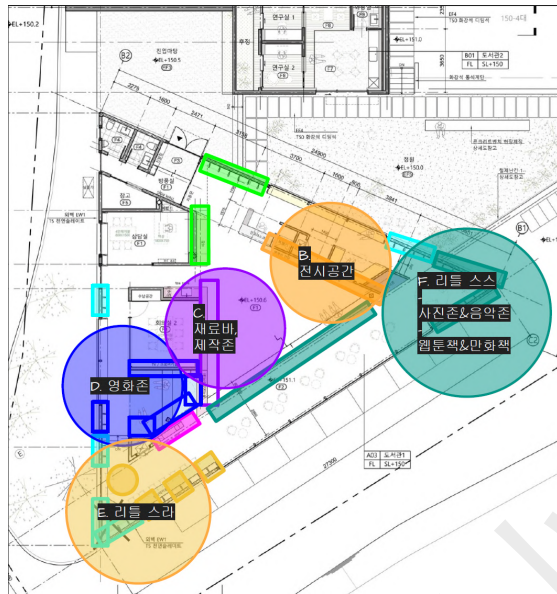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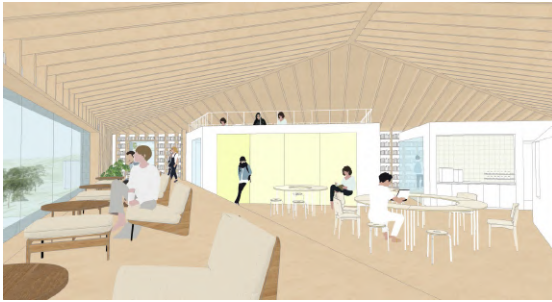
토크 콘서트 - 여행을 통해 배운 것들을 영상과 이야기로 풀어내는 자리

그 밖의 발표회 및 외부연계행사



3. SCL 조감도





- 도서관에서는 보다 확장, 수업과 연결되는 활동들을 어떻게 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콘텐츠 개발 생산 필요.
-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도서관의 역할과 외부와의 연결, 교육과의 연계에 대한 고민 필요.

■ 추후 계획

1. SCL(second chance library) 23년 6월 설립 예정.
 - 도서관 콘텐츠 담당 교사 채용을 통한 독서 수업의 전문성 확대
 - 도서관을 통한 새로운 정체성 부여 및 도서관의 다양한 경험 <낯선 경험><새로운 경험><단절되었던, 그리워했던 경험>
 - 세품아 사례관리 및 교육의 교재 및 결과물 아카이빙

사업 2-1-4	세품아 수업다큐
----------	----------

■ 진행과정

1. 몽골 힐링캠프가 주는 의미, 왜 필요한가?

-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떠나는 여행

힐링캠프는 세품아가 시작되기 이전부터 진행하던 여행수업으로 단절과 몰입이라는 키워드로 진행된다. 세품아에 왔다면 누구든 한번 이상은 가보아야 하는 공동체로 유입되기 위한 첫 발걸음을 내딛는

여행이다.

아이들이 자신을 억누르던 모든 환경으로부터 떠나 대자연의 품에서 심을 얻고, 자신을 발견하고, 자신이 걸어 가야 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첫 걸음을 내딛을 수 작은 발걸음이기도 하다. 대자연과의 만남을 통해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 여행을 통해 펼쳐질 수많은 경험을 통해 잃어버렸던 나를 찾고 잃어버렸던 나의 소중한 미래를 발견하는 것이 목적이다.

- 이런 아이들을 국내 여행이 아닌 굳이 해외까지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해야 하는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는가?

적어도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을 벗어나는 순간 아이들을 자신을 옥죄던 시선과 환경으로부터 자유로워진다. 또 누군가, 또는 스스로 주는 낙인감으로부터 해방이 된다. 자유와 해방감이 주어지면 아이들은 원래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된다.

- 그렇다면 왜 몽골인가?

- ◎ 몽골에서만 할 수 있는 승마 트레킹을 통해 동물과 교감하고 마음껏 초원을 달리는 즐거움을 통해 익숙하지 않은 감각들이 일깨워진다.
- ◎ 몽골에서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활동들(승마, 초원 트레킹, 사막 체험 등)을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본인을 되돌아 볼 시간을 가질 수 있다.
- ◎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오염되지 않은 몽골의 대자연과 밤하늘의 쏟아지는 별들을 보며, 자연의 위대함과 아름다움, 웅장함을 통해 위로 받고 회복됨을 느낄 수 있다.

2. 진행

- 프로젝트명 : I CON PROJECT [나를 찾고, 나를 말하다]
- 여행기간 : 2022.8.14.~8.27(13박14일)
- 여행인원 : 학생 10인+교사 5인(영상촬영1인 포함)
- 여행 목적: 새로운 환경에서의 새로운 나를 발견하기, 단절과 몰입, 공동체성 함양 및 확립

『낯선 곳에서의 나』 세부 일정				
일자	시간	일정 & 활동 & 순차사항	숙소	식사
1일자 (8.14월)	오전 8시	1. 출발 ① 인천 10:00 ~ 몽골 울가스 공항 13:00 도착 (2시간40분 / 국제항공) ② 베이리스 캠프 이동 몽골 울가스 공항→몽골드 베이리스캠프 이동시간 30분 소요	베이리스 캠프 (몽골드/게르) 5일1박	朝食 중식 저녁식
	오후 2시	2. 몽골여행 ① 몽골 여행의 매력 ② 몽골 여행의 매력 ③ 몽골 여행의 매력 ④ 몽골 여행의 매력 ⑤ 몽골 여행의 매력 ⑥ 몽골 여행의 매력 ⑦ 몽골 여행의 매력 ⑧ 몽골 여행의 매력 ⑨ 몽골 여행의 매력 ⑩ 몽골 여행의 매력 ⑪ 몽골 여행의 매력 ⑫ 몽골 여행의 매력 ⑬ 몽골 여행의 매력 ⑭ 몽골 여행의 매력 ⑮ 몽골 여행의 매력 ⑯ 몽골 여행의 매력 ⑰ 몽골 여행의 매력 ⑱ 몽골 여행의 매력 ⑲ 몽골 여행의 매력 ⑳ 몽골 여행의 매력 ㉑ 몽골 여행의 매력 ㉒ 몽골 여행의 매력 ㉓ 몽골 여행의 매력 ㉔ 몽골 여행의 매력 ㉕ 몽골 여행의 매력 ㉖ 몽골 여행의 매력 ㉗ 몽골 여행의 매력 ㉘ 몽골 여행의 매력 ㉙ 몽골 여행의 매력 ㉚ 몽골 여행의 매력 ㉛ 몽골 여행의 매력 ㉜ 몽골 여행의 매력 ㉝ 몽골 여행의 매력 ㉞ 몽골 여행의 매력 ㉟ 몽골 여행의 매력 ㊱ 몽골 여행의 매력 ㊲ 몽골 여행의 매력 ㊳ 몽골 여행의 매력 ㊴ 몽골 여행의 매력 ㊵ 몽골 여행의 매력 ㊶ 몽골 여행의 매력 ㊷ 몽골 여행의 매력 ㊸ 몽골 여행의 매력 ㊹ 몽골 여행의 매력 ㊺ 몽골 여행의 매력 ㊻ 몽골 여행의 매력 ㊼ 몽골 여행의 매력 ㊽ 몽골 여행의 매력 ㊾ 몽골 여행의 매력 ㊿ 몽골 여행의 매력		
2일자 (8.15월)	오전 8시	3. 몽골여행 ① 몽골 여행의 매력 ② 몽골 여행의 매력 ③ 몽골 여행의 매력 ④ 몽골 여행의 매력 ⑤ 몽골 여행의 매력 ⑥ 몽골 여행의 매력 ⑦ 몽골 여행의 매력 ⑧ 몽골 여행의 매력 ⑨ 몽골 여행의 매력 ⑩ 몽골 여행의 매력 ⑪ 몽골 여행의 매력 ⑫ 몽골 여행의 매력 ⑬ 몽골 여행의 매력 ⑭ 몽골 여행의 매력 ⑮ 몽골 여행의 매력 ⑯ 몽골 여행의 매력 ⑰ 몽골 여행의 매력 ⑱ 몽골 여행의 매력 ⑲ 몽골 여행의 매력 ⑳ 몽골 여행의 매력 ㉑ 몽골 여행의 매력 ㉒ 몽골 여행의 매력 ㉓ 몽골 여행의 매력 ㉔ 몽골 여행의 매력 ㉕ 몽골 여행의 매력 ㉖ 몽골 여행의 매력 ㉗ 몽골 여행의 매력 ㉘ 몽골 여행의 매력 ㉙ 몽골 여행의 매력 ㉚ 몽골 여행의 매력 ㉛ 몽골 여행의 매력 ㉜ 몽골 여행의 매력 ㉝ 몽골 여행의 매력 ㉞ 몽골 여행의 매력 ㉟ 몽골 여행의 매력 ㊱ 몽골 여행의 매력 ㊲ 몽골 여행의 매력 ㊳ 몽골 여행의 매력 ㊴ 몽골 여행의 매력 ㊵ 몽골 여행의 매력 ㊶ 몽골 여행의 매력 ㊷ 몽골 여행의 매력 ㊸ 몽골 여행의 매력 ㊹ 몽골 여행의 매력 ㊺ 몽골 여행의 매력 ㊻ 몽골 여행의 매력 ㊼ 몽골 여행의 매력 ㊽ 몽골 여행의 매력 ㊾ 몽골 여행의 매력 ㊿ 몽골 여행의 매력	게르 (몽골드/게르) 5일1박	朝食 중식 저녁식
	오후 2시	4. 몽골여행 ① 몽골 여행의 매력 ② 몽골 여행의 매력 ③ 몽골 여행의 매력 ④ 몽골 여행의 매력 ⑤ 몽골 여행의 매력 ⑥ 몽골 여행의 매력 ⑦ 몽골 여행의 매력 ⑧ 몽골 여행의 매력 ⑨ 몽골 여행의 매력 ⑩ 몽골 여행의 매력 ⑪ 몽골 여행의 매력 ⑫ 몽골 여행의 매력 ⑬ 몽골 여행의 매력 ⑭ 몽골 여행의 매력 ⑮ 몽골 여행의 매력 ⑯ 몽골 여행의 매력 ⑰ 몽골 여행의 매력 ⑱ 몽골 여행의 매력 ⑲ 몽골 여행의 매력 ⑳ 몽골 여행의 매력 ㉑ 몽골 여행의 매력 ㉒ 몽골 여행의 매력 ㉓ 몽골 여행의 매력 ㉔ 몽골 여행의 매력 ㉕ 몽골 여행의 매력 ㉖ 몽골 여행의 매력 ㉗ 몽골 여행의 매력 ㉘ 몽골 여행의 매력 ㉙ 몽골 여행의 매력 ㉚ 몽골 여행의 매력 ㉛ 몽골 여행의 매력 ㉜ 몽골 여행의 매력 ㉝ 몽골 여행의 매력 ㉞ 몽골 여행의 매력 ㉟ 몽골 여행의 매력 ㊱ 몽골 여행의 매력 ㊲ 몽골 여행의 매력 ㊳ 몽골 여행의 매력 ㊴ 몽골 여행의 매력 ㊵ 몽골 여행의 매력 ㊶ 몽골 여행의 매력 ㊷ 몽골 여행의 매력 ㊸ 몽골 여행의 매력 ㊹ 몽골 여행의 매력 ㊺ 몽골 여행의 매력 ㊻ 몽골 여행의 매력 ㊼ 몽골 여행의 매력 ㊽ 몽골 여행의 매력 ㊾ 몽골 여행의 매력 ㊿ 몽골 여행의 매력		

- 여행과정 :
 - ▶ 오전&오후
- 정해진 일정에 따른 진행(체험과 프로그램) 및 이동
- ▶ 저녁

- 1) 워크북 작성
 - 일기, 333감사, 나에게 묻다, 장점퍼레이드
- 2) 아이스브레이킹 질문을 시작으로 작성한 워크북 내용을 대화하며 나눔.

3) 매일 주제별 나눔

- 333감사 : 그날 감사한 것, 감사한 사람 등 감사에 대한 자기 생각.
- 나에게 묻다 : '나에게 묻다'에 나온 질문의 대답으로 대화.
- 5분 스피치 : 교사와 아이들이 '나의 Second chance'를 주제로 발표4

4) 장점퍼레이드 : 매일 한명의 아이를 정하여 모든 멤버가 그 아이의 칭찬할 점을 준비하여 발표

5) 기도회 : 하루를 마감하며 다양한 방식의 기도로 모임을 마무리.

- 사전준비 : 몽골 프로젝트 수업 6회+발표+외부 연계 프로젝트 2회

1회> 몽골여행에 대한 동기부여

1. 몽골 및 산티아고 영상시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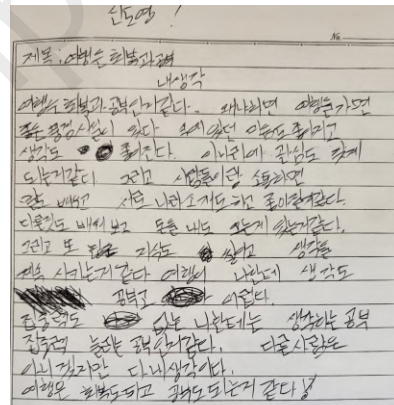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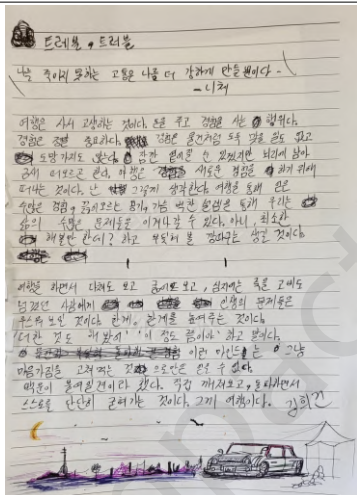
2. 생각 나눔

Q: "사서 고생하는 것이 여행" 인데 어떤 가치가 있어 사서 고생을 할까?

3. 과제

1) 내가 생각하는 여행의 가치와 의미

2) 생각의 확장: 책 ,유튜브,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여행의 가치와 의미에 대한 이해를 확장하여 자료를 만들기



외부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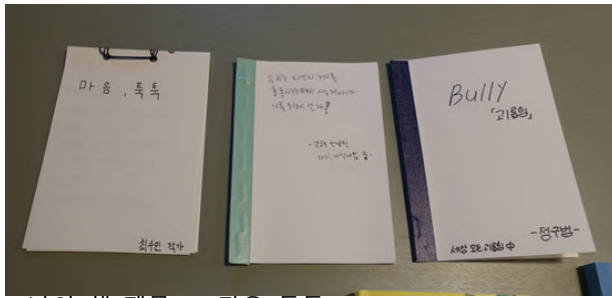
- 방문처 : 스토리 라이브러리&스토리 스튜디오 방문
- 방문일시 : 7월27일 13:00~16:30
- 방문자 : 몽골 여행 학생 10인
- 프로그램

1) 스토리라이브러리 '문장수집가'

- 작가로서 문장 수집하고 고른 문장으로 책 엮기

▶ 최작가님

- 미션 : 빨간색이 들어간 책
- 고른 도서 : <19>



- 나의 책 제목 : <마음 똑똑>

- 고른 문장 : “그냥”이라는 말을 자주 써요. 가벼이 던지는 한 마디가 아니라 너무 담을게 많을 때 씁니다. 말로 모든 걸 설명하기 어려울 때, ‘그냥’이라는 두 글자에 모든 걸 담아 얘기해요.

▶ 정작가님

- 미션 : 시웃이나 리을로 시작하는 책

- 고른 도서 : <뭐가 되고 싶냐는 어른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법>

- 나의 책 제목 : <나>

- 고른 문장 : “좀 해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주 피눈물이 난다. 나름 속으로 주먹 움을 삼키면서 뛰고 있다. 해도 안되는데 어찌란 말인가. 가끔 사람들은 내가 된다는 이유로 상대방도 쉽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럴 때마다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이런 잔인한 놈들아, 너네나 열심히 해라. 아주 세상을 열심히 살아서 만사가 대통하고 성공하세요.”

2) 스토리 스튜디오 ‘이럴 땐 이런 음악, 플리플리’



Track 1. RGP - 부산바캉스	DJ 푸아쿠아
TITLE	
Track 2. 볼빨간 사춘기 - 여행	DJ 환
Track 3. CAMO - Life is wet	DJ 아끼바리
Track 4. 바이브 - 사진을 보다가	DJ 도
Track 5. 윤종신 - 오르막길	DJ 멘
Track 6. 아이들 - TOMBOY	DJ 덩

- 몽골로 여행을 갈 때 들을 플레이 리스트 만들기

- [스토리 스튜디오] 몽골 여행 갈 때 듣고 가야 할 노래 링크 :

[<https://www.youtube.com/playlist?list=PLdhApY0PonTELKq0yVfvRBHd5-fgZzch>]

▶ DJ 푸아쿠아

- ‘RGP - 부산바캉스’ 처음 몽골 여행을 시작 할 때 경쾌하게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서 추천했어요.

▶ DJ 환

- ‘볼빨간 사춘기- 여행’ 태어나서 생전 처음 가는 낯선 곳이기에 시작은 친근하게 떠나보자라는 마음으로

▶ DJ 아끼바리

- `CAMO - Life is wet` 몽골과는 괴리가 있는 신나는 노래이고요.

▶ DJ 도

- `바이브 - 사진을 보다가` 사람들이 좋아하는 가수이기도 하고, 자연을 보면서 이 노래를 듣고 싶어요.

▶ DJ 맨

- `윤종신-오르막길` 힘들고 지칠 때 이 노래를 들으며 힘을 얻어야겠어요.

▶ DJ 덩

- `아이들 - Tomboy` 노래가 매우 신나고 중독성이 있어서 골랐어요.

3) 사후 설문 결과

- 책을 둘러싼 경험에 대한 의견

“책이라는 것이 굳이 길어야 된다는 고정관념을 깨주는 것 같아서 좋았다.”
“책을 찾아가며 문장을 수집한다는 점이 굉장히 신선했고, 나만의 책을 만들었던 게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좋은 글을 읽는 것을 좋아했는데 내가 좋아하는 좋은 글로 책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내가 뭘 잘 보는지 잘 알 수 있었고, 책을 만드는 과정이 정말 새로웠다.”

- 소통에 대한 경험

“노래가 힘이 되는 걸, 그리고 책을 우리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서로 노래를 선정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좋았고 재미있었어요.”
“다른 사람 노래 취향을 알 수 있는게 새로웠다.”

■ 성과 및 과제

- 여행 이후에 아이들의 이탈율이 줄어 들고, 연장율이 큰폭 상승.
- 실제 22년 8월 생활관 도보여행 이후 **현재까지 이탈율 0%, 다음 단계로의 연장율은 40%**임.
- 몽골 여행 이후 [생활 - 그룹] 단계에서 더 있기를 원하는 아이들과 수준의 차이로 인한 자립의 단계가 다시 마련되었고, (2019년 이전까지 자립의 단계가 있었으나, 인력의 한계로 인해 돌봄과 교육의 통합이 아닌 최소의 돌봄 정도였음.) 자립의 단계는 이전과 같은 형태가 아닌 학교 입학의 형태로 최소 1년에서 4년까지 자신에 대해 배우고 자립을 준비해나가는 정서적 돌봄과 실제적 배움이 동반하게 됨. 몽골 여행 이후의 아이들 **10명 중 40%는 다음 단계로 연장하였고, 50%는 퇴소한 뒤 건강한 사회생활을 유지하고 있으며, 10%는 퇴소 이후 다시 세움아로 돌아오기를 다시 요청하여 다시 함께하게 됨.**
- 여행을 경험하기 전과 후의 아이들의 **공동체로의 유입도와 안정감이 모두 상승**하였고, 경험의 차이로 인한 **여행을 경험한 아이와 경험하지 못한 아이의 수준의 차이가 생겨 실제적으로 생활과 교육에 이르기까지 그 파급력이 생김.**

“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전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는데, 이렇게 완전 새로운 곳에 오니 너무 신기하고 좋았다. 좋은 여행일 것 같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렵기도 하지만 그만큼 기대도 된다.”
- 몽골 일기(아이들) 중에서

“ 나는 무엇을 할 때든 두려워서 시작을 해보지 못하였다. 실패가 두렵고 시선이 두렵고... 여러 가지가 나를 두려움속에서 빠져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도전을 해보니 뭔가 이겨냈다는 그 감정이 생기니 재미있었다. 버티면 버틸수록 승리에 가까워 지는게 느껴지는 것도 재미있었다.”
- 몽골 일기(아이들) 중에서

“ 몽골에서 아이들의 새로운 모습을 발견했다. 상황이 힘들어도 마음을 건강하게 가지려는 노력들이 여기저기서 보였다. 왜 한국에서는 힘이 드는데 몽골에서는 가능한거지? 라는 고민이 생겼다. 역시 몽골은 여행은 아이들에게 그렇게 먹기 힘들다는 새로운 마음을 먹게 하는구나. 새로운 도전의 시작이 되는구나라를 다시 한 번 느꼈던 순간이다
- 몽골 일기(교사) 중에서

- 여행의 의미에 맞는 여행지 개발 필요. 단절과 몰입의 최적지인 몽골부터 교육과 한계에 도전 할 수 있는 다양한 여행지의 선택의 폭이 필요. (도보여행, 자전거 여행, 가족 여행, 한계 도전 여행 등)
- 몽골여행에 가졌던 다양한 도전과 마음가짐을 한국으로 돌아와서 일상의 생활과 교육으로 녹여내고 실천하는 것이 중요 과제임.

■ 추후 계획

1. 몽골영상 3·4편 제작 및 워크북에 기반한 책자 발간 예정.
2. 수업다큐 (여행·음악)영상 제작 예정

사업 2-2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업그레이드_교재제작_뚝뚝
--------	---------------------------

■ 진행 과정

- 1회차 수업은 텍스트, 2회차 수업부터 교재+텍스트로 진행.

1회 : 21.07.20~21.12.08 (40회) - 뚝뚝 교재 1
2회 : 22.01.12~22.05.11 (30회) - 뚝뚝 교재 1·2
3회 : 22.06.21~22.09.28 (27회) - 뚝뚝 교재 1·2
4회 : 22.10.18~ 현재 진행 중 (완료하면 30회) - 뚝뚝 교재 1·2

- 수업 진행 이후 교사들의 나눔 시간
- : 수업 주제와 그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 수업 분위기에 대한 피드백 공유 및 다음 수업 주제 논의

■ 성과 및 과제

- 수업 이후 교사 또는 영향력 있는 다른 누군가의 생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만의 견해가 생기게 시작.

- 자신의 감정과 생각의 근거를 찾아내는 것이 한결 수월해지고, 그것을 말로 구체화 할 수 있는 표현 능력이 향상되어 당연했던 생각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됨.
- 일상생활의 갈등상황에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확장되고, 타인을 존중 하게 됨.

▼ 성공 사례

가장 성공했다고 생각되는 아이는 **‘본인의 모습을 다르게 인식하고, 본인의 내면에 변화할 수 있는 힘이 있음을 깨닫고 도전을 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다르게 인식한다.’에는 객관적으로 인식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여 발견할 수 없었던 자신의 이기적이고 피해를 주는 모습을 텍스트와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미 가능성이 없다’, ‘해봤자 안된다’ 등 스스로와 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에서 ‘바꿀 수 있다’, ‘힘들어도 도전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등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긍정적인 생각에 이어 도전을 하게 될 때, 초보적인 도전의 내용에는 ‘미래를 위해 공부를 한다.’와 같은 스스로를 위해 하는 도전이 많고, 좀 더 나아간 도전의 내용에는 ‘무시당했다고 생각했을 때 화내지 않고 이유를 물어보기’ 등 다른 사람과의 관계적인 부분에서 변화하려는 도전이 있습니다.

▼ 실패 사례

가장 어렵다고 생각하는 아이는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처음과 똑같은 수준의 생각을 점점 더 그럴 듯한 말로 포장하는 능력이 키워지는 경우’**입니다. 똑똑수업을 하면서 미덕, 고급 어휘를 습득하여 적절한 경우에 사용하는 능력은 생겨나지만, 자신을 더욱 들여다보아야 하고 더 많은 배경과 정보를 고려해야 하는 질문에 계속 같은 수준의 답을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말의 발전된 것처럼 보이지만 말의 핵심적인 내용에는 전혀 발전이 없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어려운 아이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포장된 좋은 말로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어, 실제로는 ‘말을 안 들으면 폭력을 써야 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폭력에 관한 질문에 항상 ‘폭력은 나쁜 것이니까 쓰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등으로 답변하는 것입니다. 본 생각이 드러날 수 있는 극단적 상황을 가정한 질문이나 (거의 모두 심한 폭력의 경험이 있기에) 감정적으로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폭력의 경험에 대한 질문을 해도 피상적이고 짧은 답변만 할 뿐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고, 가면을 쓴 것처럼 동일한 답을 합니다.

위 두 가지 경우의 공통점은 **아이가 가면을 벗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 많이 부정적일지라도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아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생각을 더 하게 되고, 본인의 내면을 더 들여다보게 되는 것이든, 타인이나 환경에 대해 다르게 인식하게 되는 것이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 교사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똑똑 수업

똑똑수업의 무기는 ‘질문’입니다. 아이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고정적으로 여기는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던집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폭력’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폭력을 당

해봤고 폭력을 행사해본 아이들은 ‘폭력은 어쩔 수 없는 것, 어쩌면 나를 지켜주는 좋은 것, 오히려 효과가 좋은 방법’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폭력이 정말 어쩔 수 없는 것인지? 다른 방법은 없는지?’, ‘본인의 경험 속에서 맞았을 때 정말 효과가 좋았는지?’ 등을 질문합니다. 정답을 제시하지는 않지만, 끊임없는 질문과 대화를 통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에 대해 스스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똑똑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생각의 근육이 자라고, 자신이 생각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고 더욱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선순환**에 들어옵니다. **생각의 ‘재미’**를 느낍니다. 그리고 세피아 밖에서도, 안에서든 힘의 서열에 따라 물리적인 몸의 대화가 익숙한 아이들이지만 말을 통해 소통을 하는 연습을 하면서 안전한 대화를 하는 방법도 조금씩 배워갑니다.

■ 추후계획

1. 똑똑교재 3편 발간 (23년 상반기)

- 똑똑 교재 1,2편에 담긴 텍스트의 주제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일상 생활에서 마주하게 되는 갈등과 감정.
- 주제의 특성 상 당시 구성원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당시 구성원들의 분위기 등이 반영되어 같은 주제를 다룬 텍스트일지라도 구성원들에게 와 닿는 요소들은 다른 경우가 많음.
- 더 넓은 기간을 두고 보면 반복되는 맥락과 중복되는 요소들이 많지만, 아직은 좀 더 다양한 상황과 요소를 다룬 텍스트들이 필요함.
- 연령대가 점점 더 다양해짐에 따라 쓸 수 있는 이야기의 폭이 확장되어야 함.
- 3편 교재에 추가 될 텍스트의 주제들
 - 1) 부모님의 긍정적인 모습과 부정적인 모습 사이에서의 혼란스러움, 갈등
 - 2) 부모님이 주신 상처에 대한 이해
 - 3) 퇴소 후 잘 지내는 경우와 잘 못 지내는 경우의 차이점
 - 4) 세피아 생활 초기와 후기의 마음가짐
 - 5) 거짓말로 인한 갈등과 거짓말을 하는 이유
 - 6) 배려와 신뢰
 - 7) 돈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신념

2. 몸·여행·음악 교재 편찬 (23년 하반기)

- 몸 : 아이들의 신체적 성장을 수치와 이야기를 통해서 정리하고 몸의 변화가 모든 변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음을 기록
- 여행 : 다양한 여행의 의미, 내용을 기록하며 여행 속에서 만남, 사람과 변화를 기록
- 음악 : 공연을 준비해가는 과정과 결과를 함께 기록

사업 2-3	교육과정의 모듈화 [Challenge-Change-Chance maker] 세피아 모델 확립
--------	---

■ 진행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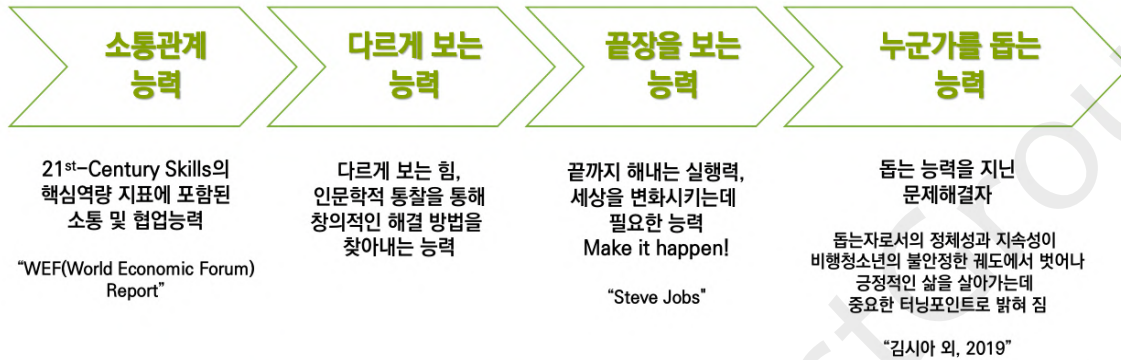
1. 교육의 목표

자기다움을 발견하고, 수용하고, 실현하고, 자기화 될 수 있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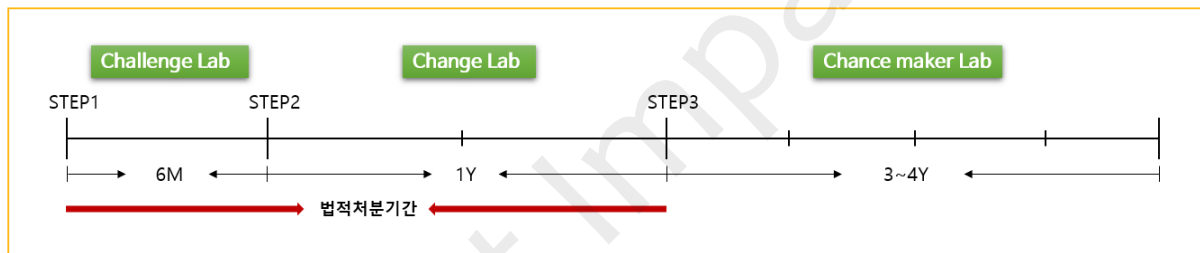
Doing이 아니라 Being이다. 존재가 되어지고 세워지는 과정 자체가 교육이다. 자신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로 살아갈지를 발견하고 그 존재가 되어지도록 한다. 자신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존재가 드러나는 삶의 양식과 기술들을 습득하고 그것이 자기화 되어져 가는 과정이다.

지식은 널려있다. 배울 수 있는 길도 널려있다. 그것을 배우는 이유와 그것을 배우는 열정과 배움의 과정을 견뎌냄을 넘어서 즐길 수 있는 단계에 이르러야 한다. 그 모든 것을 길러내는 것이 바로 자기가 되어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을 교육한다.

2. 갖추어야 할 능력



3. 교육과정의 특징



■ 성과 및 과제

- 세목아의 성장별 단계를 3단계(생활관-그룹홈-자립홈)로 분류하여 맞춤 교육 체계 확립

생활관 (Chanllenge Lab)

- 대상자 : 입소부터~6개월 [13세-20세의 청소년]
- 특성 : 대부분이 사회에서 욕구중심의 생활을 지속하여 범죄를 하게 되었으며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른들(부모나 이웃)이 부재한 상태로 모든 것을 또래 집단의 영향과의 상호 작용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
- 목적 : 아이들이 선택하지 않은 새로운 도전(법적처분)에 직면하여 그것을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는 아이들로 세우는 것.
- 교육내용 : 단기적인 목표를 정하고 몰입과 집중을 통하여 성공을 경험.

생각을 깨우고 삶의 습관을 새롭게 하는 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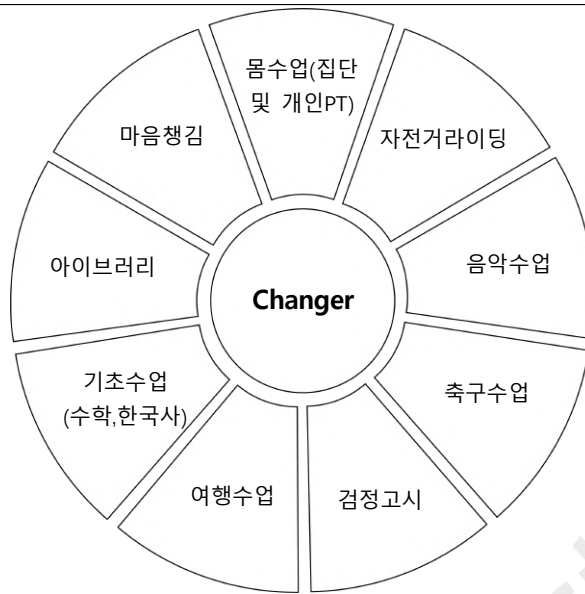
- Signature 수업 : 똑똑



© 2022년 기준 생활관에 54명의 아이들이 거쳐감

그룹홈 (Change Lab)

- 대상자 : 입소 6개월 ~ 18개월까지 [15세-20세의 청소년]
- 특성 : 생활관 생활 후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자신의 의지로 세움아에 남아서 자신을 개발하고 성공하고자 결정한 아이들, 보통 법적인 연장처분은 사건과 사고 같은 요소로 기간연장이 되는 경우가 일반이며 스스로의 성장을 위한 연장은 세움아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방법임.
- 목적 : 위의 과정을 통해 생각이 깨어졌다면 더 깊은 생각으로 나아가 생각과 행동의 일치와 함께 사는 삶 배우기.
- 교육내용 : 선택+집중하는 자발성을 강조. 자신의 가치와 새로운 이해를 통해서 **자기다움을 알고 배워 타인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면서 건강한 삶의 루틴을 형성하도록 도움.
- Signature 수업 : lbrary [아이브러리 / I 와 LIBRARY의 합성어]
- 나다움을 찾고 배워가는 과정. 성품과 감정에 대해 알아가고 그 안에 담긴 것들을 자기화하여 나의 목소리로 이야기 할 수 있도록 함. 결국 나는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등 나에 대해 깊이 알고 찾아가는 작업으로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 해당
- 주제선정 → 다양한 경험 (전시/영화/여행/책 등) → 나의 경험과 생각에 기반으로 재해석 → 어떤 형식으로든 결과물 내기 → 전시 및 발표
- 진행 상황 : project 1 [헤이트], project 2 [약함이 힘이 될 때]



© 2022년 기준 그룹홈에 16명의 아이들이 거쳐감

주변 사람의 중요성이다. 나도 여기 들어오지 않고 계속 사회에 있었다면 배달하며 그런 사람들만 만났을 것이다, 공부하겠다는 생각은 커녕 돈만 벌겠다는 생각만 가진 채로, 그런데 학교든, 그룹홈이든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나도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긴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으니 그곳이 어느 곳이냐에 따라 사람은 바뀐다는 걸 다시 알게 되었다”

- 프로젝트 “약함이 강함이 될 때” 中 6개월차 20세

“ 이 영화를 보면서 나는 항상 나의 삶은 불행하고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은 다 쓸모가 없고 세상은 왜 공평하지 않냐고 투덜대며 살아왔었다. 하지만 내가 항상 옆에 있던 사람들과 물건, 음식,등등 내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소중해졌고 그걸로 인해 내가 행복한 사람인 것을 깨달았다. 아직도 불평불만이 많은 나지만 나의 주변 사람들은 나에게 큰 힘이 되고 나는 항상 행복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살아갈 것이다.

- 프로젝트 “약함이 강함이 될 때” 中 1개월차 18세

“ 집으로 돌아간 친구들로부터 똑똑수업과 아이브러리 수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대부분이 처음 하는 수업이고 앉아서 생각이라는 것을 해야 하기에 너무나 힘들어해요. 근데 너무 신기한게 그 때의 상황과 똑같은 순간이 현실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야기 하더라구요. 그때 배웠던 대로 시도해봤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마음이 따뜻해지더라구요”

- 그룹홈 선생님

자립홈 (Chancemaker Lab)

· 대상자 : 최소 1년~4년 [17세 이후의 청소년]

· 특성 : 그룹홈까지는 법적인 처분이 지속되나 자립홈부터는 보호 청소년의 처분이 아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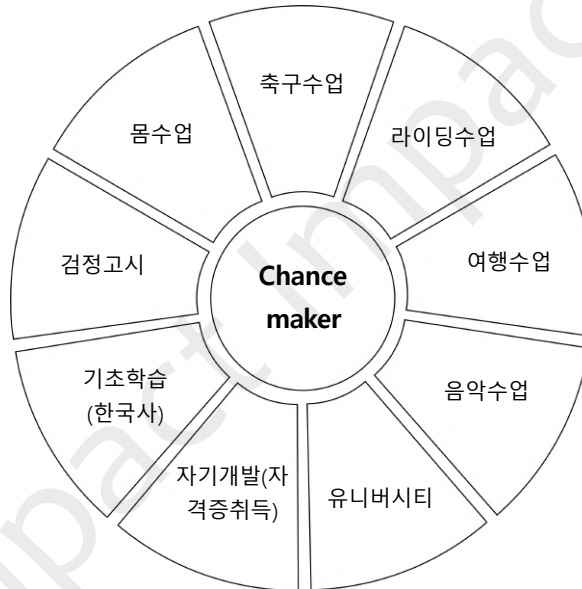
이전까지는 남에게 도움을 받고 의지하는 과정이라면 이제는 남을 돕고 이웃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교육함.

· 목적 : 세상에 해를 끼치던 삶에서 이제는 누군가에게 세컨찬스를 주며 살아갈 수 있는 실력과 인격을 세워가기 위한 교육 과정.

· 교육내용 : 나를 알아가고 우리(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를 알아가고 세상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교육 진행. 모든 과정은 50명의 아이에게 50개의 커리큘럼이 필요하다는 확신 속에서 철저하게 개인의 수준과 속도에 맞게 교육이 설계되어 진행되며 개별 과목 중심이 아닌 융합교육방식으로 진행. 자기다운 삶이 가장 탁월한 삶이라는 믿음 속에 아이 하나하나의 삶 속에 숨겨진 것들을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것이 교육의 중심.

· Signature 수업 : 유니버시티

- 자기다움 1. 나를 찾아서 [자신의 자서전/부모님의 자서전 쓰기]
- 자기다움 2. 나답게 사는 것이란? [나의 슈퍼스타/사람 책으로 배우기/나답게 사는 것]
- 자기다움 3. 나답게 살기 위하여



© 2022년 기준 자립홈에 4명의 아이들이 교육 중.

- 생활관 54명, 그룹홈 16명, 자립홈 4명의 아이들 교육 이수.
- 커리큘럼 중 필수교육[단계별 시그니처 수업, 몸, 음악, 여행] 과 선택교육[기초학습, 독서 수업, 검정고시, 동아리 활동 등]으로 나뉘어 공통+개인별 수업 동시 진행 중.
- 다음 단계의 교육으로 올라갈 시 2주 간의 준비 과정을 가져서 적응도를 높임
- 조회&종례, 일기, 체크리스트 작성 등을 일상화하여서 자신의 스케줄과 일정을 체크하고 그로 인한 성장도를 확인함.
- 생활관에서 그룹홈으로 선택하는 아이들 수 증가 **(21년 8명 → 22년 16명 증가)**

“교육을 하면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 같다. 생각이 성숙해지고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다.”
- 그룹홈 3.5개월차 17세

“ 내 몸에 변화가 생겼다. 생각이 생겼다. 나의 장점과 단점을 알게 되었다.”
- 생활관 3개월차 16세

“ 나에게 의미있는 경험이 되는 도보여행, 또 가고 싶다”
- 그룹홈 1개월차 16세

“ 대학을 가고 싶은 꿈이 생겼다.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 그룹홈 5개월차 18세

재미 # 놀이 # 변화의 장소 # 지루하지만 해야만 하는 수업

- 체계적인 교육은 자신을 발견하고 발전할 수 있는 고민의 시작점이 됨.
- 자신이 저지른 범죄에 대한 반성과 자신을 둘러싼 관계를 다시 고민하게 되고 이후 자신의 삶에 대한 고민과 자각이 일어남.
- 아이들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도전은 또 다른 도전을 만드는 계기가 되도록 함.